

※ 이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비공식 번역문으로,
해석에 있어서 원문과 차이가 있는 경우, 원문이 우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 메시지

(2023년 5월 2일, 대한민국, 인천)

1. 우리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대한민국 인천에서 추경호 한국 부총리 겸 재무장관 의장하에 제23차 한중일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는 이 회의가 2019년 5월 이후 4년 만에 처음 대면으로 개최된 것을 환영한다.
2. 우리는 최근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과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에 따르면, 2022년 3국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그에 따른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2.6% 성장했다. 2023년에는 위기로 격상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물가 상승 압력 등으로 역내외 환경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3국은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과 각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한국, 중국, 일본간 밀접한 경제 관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근, 특히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 경제 관계가 둔화함을 목격했다. 우리는 전례 없는 팬데믹을 딛고 빠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위해 3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팬데믹 이후 시기 성장 확보, 지속되는 부정적 효과 최소화, 미래 충격에 대비 등을 위한 경제 및 교역 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또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이행도 전적으로 지지한다. 더욱이, 우리는 최근 팬데믹으로 인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23년간 이어져 오며 우리의 금융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한중일 회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대면 회의 재개를 계기로, 우리는 장관 및 총재, 차관 등 고위급과 실무급 협의체를 통해 지역 및 3국 금융협력 강화를 지속할 것이다.
4. 우리는 역내 금융협정(RFA: Regional Financing Arrangement) 강화를 위한 신규 대출프로그램과 더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원 구조에 대한 논의를 환영한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가 다른 글로벌 및 지역 금융안전망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한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5. 우리는 자발적이고 수요에 기반이라는 원칙하에서 회원국이 자국 통화 및 제3국 통화로 CMIM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된 CMIM 운영지침(OG: Operational Guidelines)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CMIM 금리 구조를 검토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제13차 모의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칭찬한다. 우리는 제14차 모의 훈련이 CMIM의 작동성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확신한다.

6. 우리는 AMRO의 조직역량 제고를 위해 거시경제 점검, CMIM 운영지원, 기술지원 제공 등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역내 지식허브로서 AMRO의 역할 정립, 아세안+3 금융협력 사무 지원 등 신규 과제를 도입하는 AMRO의 전략방향 2030을 환영한다. 우리는 AMRO가 전략방향 2030을 이행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는 또한, 기본 원칙들을 포함하여 AMRO의 고위직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논의를 환영한다.
7. 우리는 2019-2022년 역내 채권시장 발전 이니셔티브(ABMI: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중기 로드맵의 성공적인 이행을 환영하며, 2023-2026년 새로운 중기 로드맵을 지지한다. 우리는 자국 통화 표시 채권 발행의 확대와 혁신을 위해 노력한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의 노력을 칭찬한다.
8. 우리는 작업반(WG: Working Group)들이 이룬 성과를 포함하여 아세안+3 미래 과제에 있어서, 아세안+3 금융협력의 심화와 확대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중국이 이끄는 WG2가 아세안+3 거시 구조 프레임워크 및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이룬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일본이 이끄는 WG3가 논의한 재해 위험 금융(DRF: Disaster Risk Financing)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DRF를 아세안+3 금융 프로세스의 정규 의제로 채택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한국이 이끄는 WG4가 논의한 역내 핀테크 정책 공조 강화를 높게 평가하며, 지역 협력의 일환으로서 아세안 국가들에게 오픈뱅킹 시스템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작업반들이 추가적인 진전을 이뤄나가도록 독려한다.
9. 추가적으로, 우리는 두 개의 신규 의제로, 일본이 주도하는 금융 디지털화와 중국이 주도하는 전환금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금융 디지털화의 기회와 도전과제: 아세안+3 지역 금융협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 보고서와, 아세안+3 전환금융 이니셔티브에 대한 서베이 보고서와 전환금융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일반원칙을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경 간 역내 통화 지급 결제, 기업부채, 가계부채, 그리고 지속 가능 금융 등 4개의 신규 과제에 관한 연구의 착수를 기대한다.
10. 우리는 2023년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공동의장국인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리더십에 감사한다. 또한, 우리는 내년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 한국과 라오스를 지지하는 데 동의한다.
11. 한국, 중국, 일본은 아세안 국가들뿐만 아니라 상호 간에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아세안+3 금융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논의를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3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3국 금융협력에 있어서 계속해서 효과적인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2024년에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